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彝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3130~9
本社直通 ☎8498

每週月曜日發行

新入生선발요강확정

入學시험 明年 2월7일

필수·선택과목 一部變更

본대학교 72학년도 신입생 선발요강일부가 발표되었다. 교무처 발표에 따르면 명년도 입학시험과목중 人文系의 필수과목 국어(Ⅰ)을 국어(Ⅱ)까지 포함시키고, 숙대학별 선택과목 「상업기」를 「상업」으로하고 체육을 삭제했다. 그밖에는 예년과 동일하며 입학시험은 72년 2월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필기시험·면접등을 치르게된다.

입학원서 교부는 1972년 1월10일부터 2월5일까지이며, 접수는 同年 1월18일부터 2월5일 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본교所定양식)와 대학예비고사 合格證의 원본및 사본으로 되어있는데, 불대 미술학과, 문리대 연극영화학과, 사범대 체육교육과 등은 예비고사와 상관없이 응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정대학 경찰행정과는 신체등에 제한을두어 신장 1백65㎝이상, 체중 55㎏, 시력과 聽力 정상인 만을 선발하며, 女子지원자, 色盲, 폐결핵이 아닌자는 별도기준에 의하여 사정한다. 그밖에 체육특기자는 대학육회장이 발행하는 추천서와 성적증명서를 원서와함께 제출해야된다.

시험과목은 人文系필수과목으로 국어(1·2), 영어, 사회, 自然系는 국어(1) 영어, 수학(1)이며, 선택과목중 한과목씩을 택일하게 된다.

예비고사와 상관없는 미술과, 연극영화학과 체육교육학과등은 실기고사를치르게 된다.

대학	필수과목	선택과목(택일)
불교대학	국어Ⅰ·Ⅱ 영어 사회	농업 수학Ⅰ 세계사 가정(女)
문리과대학	문학부—국어1·Ⅱ 영어 사회	〃
	이학부—국어Ⅰ 영어 수학Ⅰ	
법정대학	국어Ⅰ·Ⅱ 영어 사회	국사 세계사 상업 농업 수학Ⅱ
경상대학	국어Ⅰ·Ⅱ 영어 사회	물리Ⅰ 세계사 화학Ⅰ 생물Ⅰ 상업 농업 수학Ⅱ
농림대학	국어Ⅰ 영어 사회	〃 〃 〃
공과대학	국어Ⅰ 영어 수학Ⅰ	수학Ⅱ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공업 가정(女) 사회(공업경영관계限)
사범대학	인문계 국어Ⅰ·Ⅱ 영어 사회	수학Ⅱ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공업 가정(女)
	자연계 국어Ⅰ 영어 수학Ⅰ	수학Ⅱ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공업 가정(女)

洛山別莊 25일완공

8月부터 百명씩 收容

총부처에서는 洛山해수욕장 본교 夏季수련장(강원도 양양)에 건설중인 別莊전물(남학생숙소·여학생숙소·교직원숙소등) 3棟이 오는25일 완공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초부터 시작된 周공사는 현재 외곽공사를 끝내고 내부시설들을 다듬고 있는데 장마관계로 당초보다 10일늦춰 오는8月 1일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수용인원은 교직원숙소 8세대, 남학생숙소 70여명, 여학생숙소 30명으로 되어 있으며 활용기간은 4박5일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교통편은 당초 스쿨버스 이용을 변경, 個人·그룹별로 가도록 하며 수련기간이 끝날때까지 현지에 총무과·학생課직원 各1명씩과 사환 1명을 배치하여 관리사무를 맡도록했다.

學生指導者수련

雪嶽山서 一週日間 精神·體力단련

학생지도 연구소(소장=南部泳교수)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제3회 리더쉽·워샤프이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예정으로 설악산 백담寺및 洛山寺(낙산 夏季휴양소)에서 개최되고있다.

건전한 학생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과 대학인의 知的 수준 향상을 위한 이 워샤프에는 新입학생회 회장 단을 비롯 일반학생및 교직원등 80여명이 참가, 소정의 트레이닝 코스를 밟고 있다.

참가자들은 1백8拜등 불교의식과 자유토론, 特講및 교양강좌, 內省錄에서 外省錄을 획단하는 山行으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쉽」을 익히고 있는데, 샤프에는 新입학생 특별강좌 교양강좌에는 金東益총장(理想的지도자)등 8명의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번「워샤프」에서는 특히 반야심경 암송및 法華經해석, 「리더쉽」강의 내용 파악, 始終의 읽기등을 책정하여 「리더쉽·워샤프」참학생 10명을 선발, 수료식전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또한 「워샤프」의 영구적인 발전을 위해 총학생회 현임감부일동(대표=南基一총학생회장)은 5인용 텐트 15조를 기증, 참가자들을 격려하기도했다.

한편 이들 참가자들은 이기간중 본교 洛山 하계수련장에서 피서를 겸하게 되는데 숙소는 오는 25일 완공예정인 「東大洛山別莊」을 이용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워샤프」의 강사.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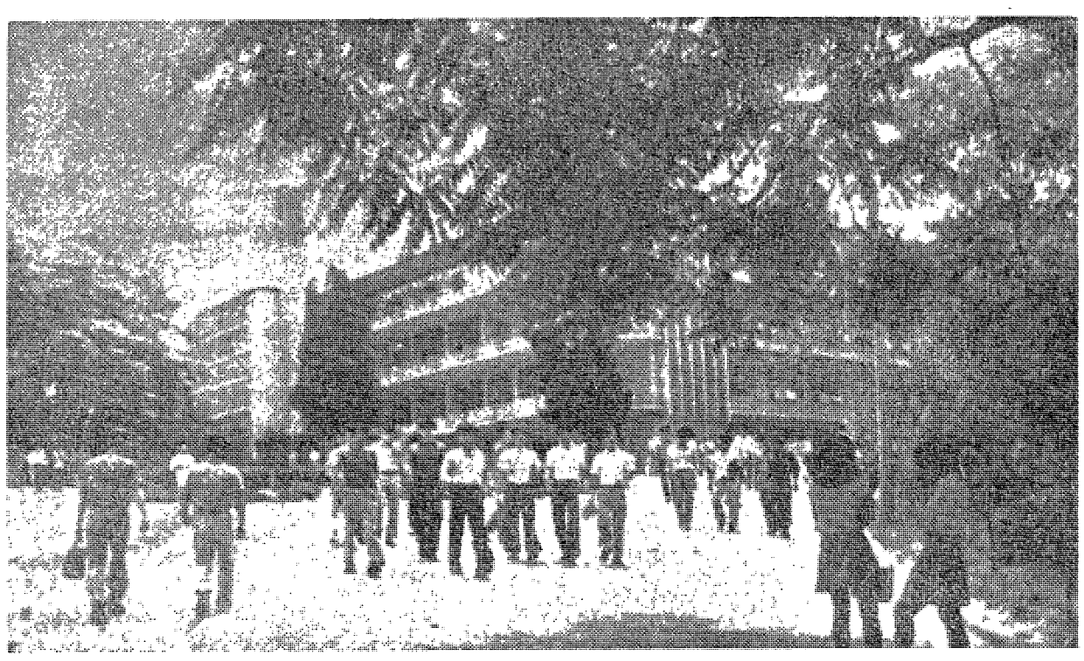
▲金東益총장=理想的 指導者▲南部泳학생처장=東國의 學生運動▲李丙璨박사(國文學科교수)=東國人의 姿勢▲金起東교양학부장=花

◇교양강좌

▲張庚鎬박사(法學科主任교수)=學生과 政治▲李成昌교수(佛敎學科)=美國의 大學生活▲申國柱박사(행정대학학장)=東國大學生의 使命▲金聖培교수(國敎科)=佛敎와 指導者像▲曺永祿전임강사(史學科)=指導者像의 實體▲趙哲孚강사(佛敎學科)=佛敎倫理와 指導者 ◇실무지도위원

▲尹乙順(여학생처장)▲鞏彦杓(학생과장)▲朴在燾(학생과지도주임)▲朴東錄(학생과)▲유홍운(학생과부)

가슴 뿌듯한 邂逅를 약속하며



○學期末시험이 끝났다. 夏期학기 마감한 학기의 보람과 내일에의 기대로 학결 발걸음이 가벼웁다.

우리에겐 「젊음」이 있다. 「지성」이 있다. 학열하는 太陽과 흙내음이 기다리는 녹여온 대학에는 知性의 손길이, 낭만의 무더위에는 나긋한 풀잎이, 광계구름이는 山頂바루에는 뿌듯한 젊음의 나래가, 책갈피를 넘기는 숨은 「不亦說呼」그대로이다.

○:방학을 맞은 발걸음은 山과 바다를 향한 저마다의 들기운그포탠」으로 가볍다. 「피로는 淸凉열섯나 서로 떠우자」 브랑으로 물들일 구리빛邂逅를 약속하며 방학은 쉬는 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始作」을 예비하는 때임을 다짐한다.

글·中寬浩기자
삽진·李春滿기자

登錄 8월25일부터

2학기學事日程 발표

교무처는 2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했다. 학·처장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된 학사일정표 2학기 등록은 본교 8월25일부터 9月4日까지다.

또한 수강신청기간도 同 기간내에 하도록 하였는데 등록을 마친 학생만이 수강신청을 할수있다. 2학기 경리과에 의하면 2학기 등록금은 1학기때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어 개학은 9월1일, 종업식은 9월6일 부터 실시된다.

한편 교무처에서는 2학기 「학사행정표」와 아울러 「학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期日을 엄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學訓團 병영훈련

14일 入所申告式 가져

ROTC 百期야영훈련이 7월19일부터 8월14일까지 10주간 실시된다.

본교 112학훈단은 漢大, 明知大, 忠北大등과 함께 수용연원에 있어 지난 14일 101에서 입소신고식을 가졌는데 이자리에서 학훈단 부보생들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유능한 장교의 명예를 걸고 연마할것」을 다짐했다고 오는 8월8일에는 출발했다. 8월14일에는 총장 이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吉正天교수

스페인技能대회에

공과대 吉正天(건축학과)교수는 스페인「히혼」에서 열리는 「국제기능경기대회」에 참석키 위해 오는 9월2일 현지로 출발하게된다.

기술지도위원의 자격으로서 다른 4명의 지도진및 선수들과 함께 떠날 吉교수는 약1개월간의 일정을 마친뒤, 오는 9월30일경에 귀국할 예정이다.

「오셀로」公演

1백회기념 國立劇場서

륜리대 演映科에서는 저녁 17·18일간 국립극장에서 「제이스피어」원작 「오셀로」를 김재남 번역 이창구연출로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본교 演映科 실습·발표회를 기념하는 대공연으로 더욱 의의가컸다.

실습공연 1백회는 한국유일의 最長기록으로써 국내연극계에 중사하고있는 연극인은 물론 학생들과 일반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켜 이틀간 [illegible] 이루었다.

한편 대외적으로 관심을 끌어 일으킨 이번 공연에는 오는10일 연영과는 연영과는 중사하고있는 연극인은 물론 학생들과 일반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켜 이틀간 [illegible] 이루었다. 이번 공연은 [illegible]

海外留學시험

8월10·11일실시

문교부시험 제3회 해외유학시험이 오는 8월10·11일 양일간 樂園등 전국대·2부校舍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7월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험과목은 국사및 논술, 외국어로 한다. 원서접수는 8월25일까지 발표한다.

社告

대학사회의 언론창달에 앞장서고 있는 본사에서는 다음과같이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아카데믹저널」에 뜻이 있고 대학생활을 폭넓고 알차게 영위하고자하는 학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대학언론의 旗手될

男女修習記者募集

①모집인원=약간명 (사진기자 포함)
②응모자격=본교 1·2학년 남녀 재학생
③제출서류=자필이력서 1통 사진 1매
④제 출 처=본사 총무부
⑤접수일자=1971년9월6일~9월11일
⑥시험일자=1971년9월13일
⑦시험과목=국어, 일반상식, 작문, 면접
⑧합격자발표=1971년9월15일

1971년8월 일

東大新聞社

貿易士2명합격

이수춘·김효광군

지난 6월13일 본교 중앙당에서 실시된 제4회무역사시험에서 본교는 이수춘(商4), 김효광(商4)군등 2명이 합격했다.

今週一言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은 많은 것이니, 어진 이는 이를 깨달아야 한다.

<法句經>

金總長歸國

터브만大統領勳章받고

본교 金東益총장은 「라이베리아」의 수도몬로비아」에서 열린 제3차世界大學總長회의, 「아이브리·코스트」를 순방하고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지난 5월26일 출발, 1개월여만에 귀국한 金총장은 이번 세계대학총장회의를 하여 世界각국大學과의 교류및 民間外交에 앞서 활약하고 있는 테너 박성원씨가 각각 맡고있다. 젊은 학도들로 하여금 知的·문화적활동에 공동참여케하여 대학문화와 민족문화창달의 「계기를 마련코자 열리는 이번 예술제에서는 30분이 소요되는 羅佛을 발표하게 된다.

참석위원·박야심경·4요잡 등이 포함되는 예불과 아울러 독창·중창·합창등 문예도 참가할 예정이다.

합창단에서는 또한 오는 27일 江陵시민관에서 불교음악합창곡과 아국가곡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2회에 걸친 공연을 갖는다.

불교 합창단

27일, 江陵서 公演도

교육방송국 불교합창단에서는 오는 9월27·28일양일간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제2회 「민족예술경연대회」와 「대학·음악경연대회」양부문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비, 지난 13일부터 60여명은 시내 [illegible] 청각교육실에서 [illegible] 연습이 한창인데 2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민족예술경연 참가자는 한단영(서울音大) 지휘자 [illegible] 敎授가, 음악경연참가 지휘자는 현재 「김자경 오페라단」을 익히고 있는데, 이번 「대학·음악경연」을 익히고 있는데, 「대학」을 넘리 과시하였다. 이 주제강연에서 金총장은 東國의 건학이념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佛敎에 의한 人類의 고의행 歸依만이 解脫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하여 歐美총장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80여개 대학 2백여명의 學徒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金총장은 또「라이베리아」「W·터브만」大統領으로부터「그랜드·몬펜데란 훈장을 받았다.

國交돈독·文化교류·교육기관有功者에게 주는 이훈장은 우리나라 2등훈장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교 金총장을 비롯 10여명이 수여되었다.

이밖에 金총장은 「W·터브만」대통령 夫妻의 환담, 양국간의 友誼를 돈독히하여 특히 民間外交에 일익을 담당했다.

大學 문화제參加

27일, 江陵서 公演도

[illegible]

同門국회의원

歡迎午餐마련

동문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오찬회가 前본교 교수인李炯錫보사부장관 주최로 지난7월 12시30분 반도호텔「용운」에서열렸다.

이번 8대국회의원에 당선된 崔瑞九(共和·固城) 吳重烈(共和·光山)劉聖範(新民·全國)동문, 金殷夏·崔炯佑동문 불참)이 참석, 수였던黃鍾律(共和·전국) 李海淵(共和·전국)의원도 참석하였었다.

또한 이자리에는 사회 根昌(국방부차관)、閔圭鎬(時事통신·編輯局長)、朴容采(大韓日報편집장)、韓沃申(大檢검사)、金成斗(朝鮮日報논설위원)、林德圭(同和通信논설위원)、宋赫(詩人·本社主幹)동문등이 참석, 국회진출을격려했다.

李炯錫保社長官

同門국회의원 歡迎午餐마련

동문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오찬회가 前본교 교수인李炯錫보사부장관 주최로 지난7월 12시30분 반도호텔「용운」에서열렸다.

이번 8대국회의원에 당선된 崔瑞九(共和·固城) 吳重烈(共和·光山)劉聖範(新民·全國)동문, 金殷夏·崔炯佑동문 불참)이 참석, 수였던黃鍾律(共和·전국) 李海淵(共和·전국)의원도 참석하였었다.

또한 이자리에는 사회 根昌(국방부차관)、閔圭鎬(時事통신·編輯局長)、朴容采(大韓日報편집장)、韓沃申(大檢검사)、金成斗(朝鮮日報논설위원)、林德圭(同和通信논설위원)、宋赫(詩人·本社主幹)동문등이 참석, 국회진출을격려했다.

보리수

눈

"눈물은 여자의 무기라고 한다. 심리학이나 생리학적으로는 기쁨이나 슬픔이 어느정도 심하여 지면 혈압이 오르거나 交感神經계통이 흥분되어 體內에서 밖으로 나가 눈물이 되어 나온다는 분비의하나라고 말한다.

슬픔이나 기쁨이 더욱 심하여져서 혈관이 팽창하면 사람이면 다 안다. 눈물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가는 잘못을 뉘우칠 때에도 눈물이 나온다. 울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할 정도라면 上·中·下 下정도의 下정도의 참회밖에 속한다. 그래도 한편 후가를 입 해당자로 서 교사자격증교부 신청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구비서류는 교부원서·이력서(이상所定양식)호적초본·신원증명서각1통과 사진2매등이다.

물

눈

눈물이 흘을때에 어느정도 물과 또 이른바 짜고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울음이 서로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정도로 많이 흘렸을 때에 흐른다고 한다. 눈물은 사람의 眞情을 겉에 나타내는 눈에보인 물質일에는 틀림이 없이다.

눈물은 맑은 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눈물은 맑지 않다. 눈물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은 맑지 않다. 눈물은 맑은 물보다 더 맑다. 눈물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은 맑지 않다. 눈물은 맑은 물보다 더 맑다. 눈물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은 맑지 않다. 눈물은 맑은 물보다 더 맑다. 눈물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은 맑지 않다.

눈물은 흘을때에 어느정도 물과 또 이른바 짜고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울음이 서로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정도로 많이 흘렸을 때에 흐른다고 한다. 눈물은 맑은 물보다 더 맑다. 눈물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은 맑지 않다. 눈물은 맑은 물보다 더 맑다. 눈물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은 맑지 않다.

□元義範□

사강全集 全7卷

■ 프랑스批評文學大賞受賞

佛語 原文에 依한 우리 나라 最初의 完訳版!

1 슬픔이여 안녕 外
2 어떤 微笑
3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4 신기한 구름
5 북 소 리
6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마음의 파수꾼
7 찬물 속의 한 줄기 햇빛

4·6判 호화 洋裝
普及 特価 4,200 원
6個月 月賦提供

飜譯陣
서울大 교수 李 桓
서울大 교수 元 潤 洙
慶熙大 교수 方 坤 字
建國大 교수 李 平 字

윗트, 유우머, 쎄타이어 그리고 파라독스로 充溢된 全敎授 엣세이의 엣센스!

인생을 사랑하고 삶에 고뇌하는 분들에게……

1 한국의 意味
2 사랑의 意味
3 여성의 意味
4 사랑의 편지
5 文學속의 女像
6 古典과 現代
7 日本의 裏窓

全帙 特価 4,800원 6個月 月賦販賣

全圭泰全作集

全7卷 增補新版

民族文學의 찬란한 結晶
겨레文化의 縮圖!

□ 解說委員 □
東大 敎授 金 起 東
延大 敎授·文學博士 金 東 旭
延大 敎授·文學博士 李 家 源
明知大 敎授 李 相 寶
梨大 敎授 李 泰 極
서울大 敎授·文學博士 張 德 順
延大 敎授 金 圭 泰
서울大 敎授 鄭 炳 昱
서울大 敎授·文學博士 許 雄

1 판소리·家庭小說集
2 愛情小說集
3 軍談·英雄小說集
4 宮廷·理想小說集
5 漢文·傳奇小說集
6 詩 歌 集
7 說話集·國文學辭典

近刊 後期7卷

大型크라운版/豪華洋裝 臨時 普及 特価12,000원
原色画報/最高級케이스 6個月 月賦提供

韓國古典文學大全集

全7卷

世宗出版公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5 ☎ ㉗ 0696, 0697, 0698 振替 서울2432

注文處 ㉗ 0697

서울 ㉖6944 ㉔2998 ㉕3397 ㉖4530 ㉘6557 ㉙3461 ㉙1815 ㉖0280 ㉓4824 ㉕2471 ㉕0758 ㉕6505 ㉝1490/부산 ㉔2559 ㉔4953 ⑥1440 ④6393
대구 ③6731 ②1551 ②6537/인천 ②1388/수원 3386/천안 136/대전 ②6314/의정부 2879/춘천 5010/원주 2303/제천 2835/안동 444/광주 58/강릉 175
속초 3751 2301/전주 4774/이리 717/군산 847/목포 ②0427 ②1902/광주 ②1890 ②1476/순천 2519/여수 2311/청주 4555/포항 2968/울산 2465
마산 2925 6703/진주 3768·3007/영월 580/김천 430/김제 162

私學의 發展과 文敎行政

(社說)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동양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나라의 역사적인 문교정책은 官學을 중심으로한 것이었다.

대한교육의 특권의식이나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적인 대학교육과 그 제도를 받아들인 19 45년이후의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문교정책은 사실에 있어서 일본 식민지 체제 밑의 官學위주의 문교정책적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단적인 현상은 교육의 내용과 교육제도 또는 문교행정의 갈등 기능자에서 찾아진다.

대학과 대학의 교육은 본래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에도 불구하고 관권의 간섭을 받고, 그럼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특자성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학은 어떠한 여건이지만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보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사학의 위기를 가져온 시초적인 원인을 잉태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여는 있었지만 사학은 정히 없다 하면 없다 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사학은 사학대로의 건학이념이 있고 교육상의 특이성 그리고 특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정책상 그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문교정책상 지켜져야할 부작용 문제점이 있어서 사학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잉태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여는 있었지만 사학은 정히 없다 하면 없다 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사학은 사학대로의 건학이념이 있고 교육상의 특이성 그리고 특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정책상 그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문교정책상 지켜져야할 부작용 문제점이 있어서 사학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잉태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여는 있었지만 사학은 정히 없다 하면 없다 할 정도이다.

처재로 국가 교육정책상 지켜져야할 희일성 또는 지속성은 지켜지지 않고 관권과 대학간에서 일기 마련인 學과관계에 관한 학원의 학일성만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대학의 내용적인 충실보다는 대학의 형식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W·터브만」 대통령의 초청한 國家的 규모의 회의였다. 때문에 교통, 「호텔」 등에서 갠퍼스의 重要性」 「국제간의 學術조성 기능」 「제2 국제간의 交流」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는 「W·터브만」 대통령이 초청한 國家的 규모의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고등교육과 아프리카」 「국제간의 학술조성 기능」 「제2 캠퍼스의 重要性」 「

새總學 출발전의 構想

「조용하고 부난한」 학생회장단 선거를 통해 새학기부터 학생회 책무를 수행해 갈 총학생회장이 지난달 27일 총학생회장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었다. 異例的으로 교양학부학생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아 여부가 거론되기도 하는등 조그마한 선거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방학을 맞았다. 「공부하는 대학」으로서의 면목을 쇄신하기위해 온힘을 쏟을 각오로 있다는 신임 安紀鏞총학생회장(정치학과 4학년)은 9월 새總學의 구성과 활차게 펼쳐질 포부들을 들어보았다.

회장은 「공부하는 대학」이라고 표현, 좀더 현실적인데에 눈을 돌리고있는 듯하다.

가령 최근에 들어 공개경쟁시험이나 졸업부 취직율에 있어 점차 나아지고 있지하지만 아직은 부진한상태에 놓여 있음을 감안, 「학구풍토조성을 위해 좀더 구체적이고 활발한 지원차전을 펴겠다」는 그의 구상이 이를 뒷받침하고있다.

理念·기질의强化

본교의 전학이념에 명실상부한 공동보조를 취할 念에 벗어나거나 투철하지못한 제반요소를 배격하고 자랑스러운 정신적 지주를 확립하 개탄으로써 줄기차게 이어온 學風의 전통을 더욱 힘차게 계승하는데 진력한다.

한편 체육의 진흥을 통해 지혜롭고 용맹있는 東國人의 기질을 재삼 확인할수 있도록 체육부활동에 總學으로서 직접 참여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學究풍토조성

대학에서 무엇보다도 중시해야되고 선행되어야할 것은 「학문」이며 「間斷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학생自治를 철저하고있는 것도 오직 학문을 기초로해서 이루어지지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安총학생회장은 대학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또한 진리를 탐구하는 일환에서 이루어지지않으면 안된다.

學生福祉·써클지원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만족할만한 복지시설을 고집할수 없는 없다. 학생회관이 가까운 시일내에 문을 열게되면 어느정도 깨끗하고 편리한 복지시설이 추가되겠지만 식당·이발소·대절등에대해서는 향상「학생위주의 봉사」인 운영이 될수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均等原則 살린 幹部人選

「공부하는 大學」에 力點

◇신임 安총학생회장

學生福祉에도 힘쓰고 單大自治制실시 구상

총학생회의 권한이 너무 집중적이어서 각 단과대에 그 권한이 이양하려는 구상은 일부책을 이양하려는 구상은 발전적인 착상으로 평가될만하다. 잘못하면 현저적인 口號가 되거나 졸속을 범할 우려가 없지도 않지만 「단대의 예산편성을 소속대학의 재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단대의학생자치의 운영」한다면 학생자치의 발전도 기할 수 있다.

單大別자치제

총학생회의 권한이 너무 집중적이어서 각 단과대에 그 권한이 이양하려는 구상은 일부책을 이양하려는 구상은 발전적인 착상으로 평가될만하다. 잘못하면 현저적인 口號가 되거나 졸속을 범할 우려가 없지도 않지만 「단대의 예산편성을 소속대학의 재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단대의학생자치의 운영」한다면 학생자치의 발전도 기할 수 있다.

公報·部署증설

해마다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총학생회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지방순회 공보활동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보고있다. 연이은 대도시 순회公報보다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보활동을 벌임으로써 다각적인 효과를거둘수 있을것으로 믿고있기 때문이다. 「회칙제정의 분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신중히 검토중」에있지만 특히公報활동을 주일루로 담당할 「섭외부」 신설을 구상중」에 있다.

또 운영부의 출석확인 갈등을 강화, 「운원부장은 단순히 운영단장이 아닌 행정가의 입장에서 總學의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운원부의 활약을 촉진하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鄕土開發에 앞장선 大學生 奉仕團

李乘東 사무국장 會見

「先연구·後봉사」의 姿勢로

1만여명 參加 한달동안 活動

지난 7월5일을 기점으로 금년도 대학생 봉사활동이 막을 열었다. 금년도의 수많은 상아탑의 주인들이 농촌으로 파탈·새출발로 농촌으로 파고 들어간다.

특히 본교는 지난 5월22일 문교부로부터 전국대학생봉사단연합회」의 「전국대학생봉사단연합회」 회장학교로 위촉을 받아 그 책임이 학교로 부담케 되었다.

同연합회 사무와 지휘를 총관장해 봉사단 전국대학생연합회 사무국장 李乘東교수(지역사회문제연구소장·同연합회 중앙지도위원)를 만나 금년도 봉사 활동범위 및 현황등을 들어본다.

—同봉사활동의 특적을 대략 어디에 두고있는지?

李=무엇보다도 민족성의 定立이고, 둘째는 自立的 경제건설이라고 하겠다. 다시 대학생들의 건전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여와 자립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길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촉진과 교육의 사명이다.

—참가범위는?

李=총합대학교22개校, 단과대학 43개校, 교육대학 16개校, 대학생활협회 등 8개校, 교육대학 9개有關단체 등 4개校 등 82個校 6개有關단체의 많은 8천6백68명에 달하면 작년의 4백46명이 늘어난 셈이다. 전국 1백10개郡 지역(읍)에 배정됐다.

—주요 활동사항.

李=크게①사회개발활동 ②경제개발활동③의료봉사 ④교육文化봉사⑤생활개선 봉사등 다섯가지로 나눈다.

—관계部署와의 협조.

李=各部처에서의 間接적인 지원은 물론 직접적인 지원도 있다.

—지도·감독 체계.

李=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합체사업으로 평가될 연계開發 계획사업으로 계속 추진, 교육의 社會化를 개발하려고 한다. 1校1郡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 기간인 15일까지 1개월간 同연합회 회장인 본교 金東益총장을 위시하여 17명이 2개팀으로 분단 순회지도와 실태파악을 하게 된다.

—관계部署에서의 협조·감독 체계.

李=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직접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단과대에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夏季봉사활동의 시행 스케줄은?

李=지난 6월26일 본교 중앙강당에서 가진 결단식을 스타트로 6월29·30일 양일간에 걸쳐 지도교수 및 학생들이 모두 초대되어 1백회실습공전을 벌였으며 마무리 일환으로 반대중의 관심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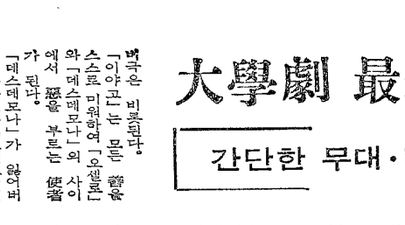
연출을 맡은 이찬구助敎는 「응색한 학교보조大劇을 준비하느라 애로도많았다. 이러한 무관심을 지양하여 줄더없으로는 폭넓은 보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격려로 야간연습까지 감행했던 이번연극은 잔다고.

이번 1백회기념연극은 演映科의 보다알찬 발전이 기대되는 바, 演劇계의 연구으로서 활동할 때 좋은 경험이 될줄로 안다. 정확한 현지실정과 아동으로 명분있는 활동이 되도록하고, 마을·의 복가짐등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지않도록 주의해야겠다. 〈奚〉

◇大學生 하기봉사단 지도와 운영계획을 말하는 李乘東교수

大學劇 最長의 公演 기록

간단한 무대·빠른템포의 비극 試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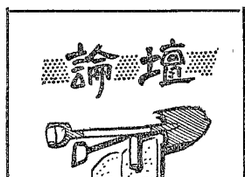
成長 평가될 오셀로 熱演

演映科實習 공연 1백회

〈國立劇場에 앞서 中央舞에서 公演한 「오셀로」의 한場面〉

大學奉仕活動

論壇



봉사지역 實情과악 급선무

주의해야할 「호기심奉仕」

男后吳 〈社會敎育科〉

敎授動靜 여름을 어떻게

家族과 함께 山과 바다찾아 避暑를 즐기기도

學生證紛失廣告

R·O·T·C 무관후보생 모집요강

순위	사항	71년도생 (3학년)	72년도생 (2학년)
1.	모집인원	○○○명	○○○명
2.	지원자격	㉮년령이 19~23세미만인자 ㉯신체건강한 남자 ㉰경범죄 이의의 형벌을 받지 않은자 ㉱71년도 1학기 군사교육 이수자	㉮18~22세미만인자 ㉯신체건강한 남자 ㉰경범죄 이의의 형벌을 받지 않은자 ㉱71년도 1학기 군사교육이 수자
3.	모집대상	입단당시 3학년에 재학중인자 (현 3학년)	입단당시 3학년에 재학중인자 (현 2학년)
4.	모집일정	원서접수 71년 9월10일—9월20일 신체검사 71년 9월21일—10월10일 적성검사 71년10월11일—10월20일 신원조사 71년10월11일—11월30일 합격발표 71년10월28일 입 단 71년11월 1일	71년 9월 1일—9월30일 71년10월 1일—10월20일 71년10월21일—10월31일 71년10월21일—12월10일 72년 2월28일 72년 3월 1일

5. 지원서교부및 접수장소: 학생군사교육단 행정반
6. 구비서류 ㉮선발편입신사표(군양식) 1부 ㉯무관후보생채용원(군양식) 2부 ㉰서약서(군양식) 2부 ㉱신원보증서(군양식) 민간유지 또는 임관장교이상 2인연대서명 2부 ㉲신원증명원(시읍면장발행) 2부 ㉳병적증명서(병무청발행) 2부 ㉴호적초본(시읍면장발행) 2부 ㉵사진(3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매
7. 선발방법 무관후보생채용 잠정규정에 의거 선발함
8. 훈련방법 ㉮교육과정은 학교훈련과 병영훈련으로 구분실시 ㉯학교훈련은 학교에 배치된 교관에 의거 실시 ㉰병영훈련은 하기방학중 2주 각사단에서 실시
9. 학훈단후보생의특전 ㉮징집유예기 ㉯훈련에 소요되는 피복및 교재를 군에서 지급 ㉰병영훈련중 숙소·급식·장구및 왕복수송일체를 군에서제공 ㉱병영훈련중 사관생도에준한 봉급지급 ㉲과정을 이수한자는 장교로 임관되어 2년3개월간 현역복무 ㉳복무연한을 계속 연장할수 있음
10. 기타 상세한 것은 학생군사교육단본부로 문의바람

제112학생군사교육단

일반학생軍事敎育보충교육에관하여

1. 71년도부터 실시한 일반학생 군사교육에 관하여 각개학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학기중에 군사교육학점을 취득하지못한 학생을 전원구제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일반학생 군사교육, 보충교육을 학교당국에서 설정하였으니 출석시간 미달학생으로서 발학증에 개인별로 학생은 빠짐없이 이수하기 바람

㉮기 간 1971년8월30일—1971년9월4일(1주간)
㉯대상인원 방학기간중 개인별로 보충교육통지를 받은학생
㉰교육반편성 교관, 조교및 교육보조재료 사정으로 인하여 보충교육인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편성하니 출석에 착오없기 바람
①제1반 : 2·3학년 학생
②제2반 1·4학년 학생
③주간교육 예정표 학생들의 일일용무시간을 오전·오후로 균등하게 고려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오일별 반별로 계획하였음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제1반	제2반	제2반	제1반	제1반	제2반	제2반	제1반	제1반	제2반	제2반	제1반

④1일 교육시간은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계 7시간으로 계획되었음

반별	교시	시간	
오전반	1교시	09·00부터	09·50까지
	2교시	10·00 〃	10·50 〃
	3교시	11·00 〃	11·50 〃
오후반	1교시	13·00부터	13·50까지
	2교시	14·00 〃	14·50 〃
	3교시	15·00 〃	15·50 〃
	4교시	16·00 〃	16·50 〃

정형외과·미용외과 명도의원 院長 김현정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2-1 ☎ ㉓ 6957·4338(UNESCO회관옆)

각안과 처방조제 각종안경구비 정평있는권위 최고의 기술 최저가격봉사 서독렌즈전문 판매점 안경의집 정화사 을지로입구(을지2가쪽) ☎22-2368

夏休의 계절

진기한 着想 紙上公開展

太陽과 …… 젊음의 계절 …… 젊은 푸른산에서 …… 바다에 밀려오는 …… 싱그러움과 무더위는 우리의 여름을 발화시킬 감나게 한다。50여일을 소모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각양각색이겠으나 「고갱이」 熱島의 태양이 작열하는 「타히티」섬에서 原色을 그림하였듯이 우리들 여지없이 익어버리게 하는 그여름의 육감을 정면으로 대해본다。

<편집자>

避暑

진기한 最新의 피서를

尹如昊

여 『짝사랑 피서』와 〈장발 피서〉 〈짝사랑 피서〉…덥치가 나보다 훨씬 크고 힘도 있어서 섹시한 왈가닥 아가씨를찾아그앞에서 애교를 떨어보는 대장부체면유지에 금이 가더라도 피서를위해선地獄行도 不辭라는 신념만 있으면 크게어려울건 없다。나의 애교가 말에 꽉든왈가닥 아가씨, 차차로 알게모르게 나를사랑하게 되리라。(피서는 이때부터다) 고담엔 쓱 모르는체 해버린 가씨는 어디로가 나를 유인해 낼거다。

등산가자는 명목으로 白雲臺곡대기로 든맥주마시자는 구실로 어느 스카이라운지로든 然後에 그왈가닥 아가씨、산밑으로나 걷을밖으로 나를 안아 내던지는 순간이면 피서는 물라이만스에이로게 된다。그런데 경고해 둔일은 女大生은 이방법을 절대 응용해선 안된다는점이다。

〈長發피서〉:몇차례를 하지않고 머릴 애지중지 길른다。이방법은이 발로도 절약되어 일거양득이 되는 셈인데 이때 「身體髮膚는 受持父母라 不敢毀損이 孝之 始也」 하면서 論語라도 펼쳐놓고 낭낭하게 읽어간다면 古典을 섭렵하는 「행인에게 혐오감을 줄말로」 장발이 되었을때 中伏이나 末伏날을 골라 鍾路나 부교동을 배회한다。피도록 파출소앞에서 어슬렁거리노라면 어김없이 순경아저씨가 가위를 들고 달려올게다 이때 「法條文을 대라」 느니 「예의인이란」 느니 「부모의 혜택을 받았냐」 느니로 청설수설하면 더욱 스릴이 있다。하지만 경찰 잡혀온 시원스레 깎이고 말것이다。

덥택에 이발해서좋고 시원해서 좋다。미안스럽게도 이방법 역시 여대생에겐 제외다。내년여름엔 여대생만을 위한피서법도 하나 고안해 놓까 생각중이다。

〈經濟學科〉

致富의 新風운동 展開

一진기한 着想

李允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수입외에 속칭「뱅땅」이라는 것을 우리네 아르바이트쯤으로 여기고 부담없이 해치워대는 복장이 몽땅 부패한 高官들하며, 政客나 所謂는 부업으로 돌리고 일확천금이나 꿈꾸는 大爵하며, 허황한 치기배 근성을 가진 족속들에게는 얼마쯤 귀감도 될만한 아르바이트를 찾다보니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

이렇게 고심참담한 끝에 드디어 썩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방학중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자못 의심스럽지 않는 바 아니나 내 나름으로는 굉장한 착상이라 믿고있다。

기묘한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맛도 있으려니와 내가 꼭 소망하는 국리민복에도 얼마간 一助가 되리라는 긍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황당무계하다고 웃어버릴지도 모르는 아르바이트新紀元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자。

요즘 政街를 비롯해서 각종사회단체가 新風運動을 전개하고 있다。

갈하는 일인데도 가끔 웃기는 일들이 더러 있음을 보고 이 착안을 하게 된 것이다。

우선 「신풍운동 공개평가 범국민 연합회」라든가 하는 대단한 이름의 단체를 내강 결성한후 거창하게 간판부터 내어건다。그리고 그 옆에는 필히 약소한 시설의 분식센터 하나쯤을 내고 인스턴트 유흥장도 걸들여 마련해 놓으면 더욱 좋다。자본금이라고 이를 불일 것도 없을 것인즉, 모든 시설은 빈약하고 검소할수록 효과가 더 있다。

그러면 國·公·私단체의 長들은 자기네의 실적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궁금해 못견뎌 눈에 쌍심지를 돋우고 몰려들게 될것이다。

실적 평가만을 흘끔 보고서 가버릴 어수룩한 위인이 어디있으랴。필시 신풍운동의 일각으로 권장되고 있는 검박한 국민생활에 시범도 보일겸 냉국수라도 한사발 사먹고 가게될것이다。 비밀 호화요정에서 몸집좋은 K마담 생각이나 하고 골프채를 들고 스윙이나 일삼지 않는 다는 결백(?)을 입증하기라도 할듯, 퇴근길엔 또 필시 약소한 시설의 유흥장에 굴이 찾아와 가볍게 쉬었다도 갈것이다。 신풍운동에 덜배어「팁」이라도 꾸리는 날이면 좀께 불쾌은 하지만 수입은 올라간다。 신풍운동 떠벌이는 사람많고, 「솔선수범하는 나리」많고, 그실적 남앞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人士 많거늘 고객이 적을까하는 염려는 아예 안해도 좋다。

매일 盛況에 연일 盛市를 이루어 다음학기 등록금이 몇%가 뛰고, 쥐꼬리만큼한 「향토장학금」이 올라오지 않더래도 한학기 학비조달쯤은 적정안해도 좋으리라。자!이제슬슬 시작이나 해볼까?

<佛敎學科>

취미

—게잡이 등 철따라

김운균

우스울 정도로 내취미는 조잡스럽고 다양하다。한마디로 熱나게 침잠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으로 예를 들어 당구장의 비록 (其十다마이지만) 長時間 홀레이리든가 바지를 걷어 붙이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노라면 시간가는줄 모르는거라든가 하는 등속의…。

이 경우 손해를 보는 게 일쑤인것은 거의 일정적이다。이것이 趣味라면 좀 벗어날지 모르지만 「美的對象을 감상하고 비판하는 능력」이란 정의보다는 「感興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맛」에 가까울게다。

어떤일에 열중적인 성격은 취미면에서도 정상적이지 못하다。어릴때부터 즐겨 탐독하던 만화는 나를 앉아버릴듯 빠져 버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책을 잡으면 밤잠을 자지못하게끔 이루어졌다。

登山을 즐겨 高校時節에는 밤나닥이 부르트도록 쏘다니고 갯펄에 (고향이 바닷가다) 게를 잡으려 갈때는 등어리가 새까맣게 타도록 개흙속에 덩굴었다。 밭이 나오니 한결 간절해지지만 어릴때 고향동부들과 게를 잡던 취미는 나를 충분히 매혹 시켰었다。썰물이되고 햇빛속에 물기를 머금은 개흙이 들어날때는 등이 빨갛고 하얀 갖가지 게들이 집에서 나와 까만바닥을 울긋불긋하게 수 놓는다。이때가 되면 갯펄 곁에서 엎드린채 응시하고 있는 조그만 가슴은 그만 흥분해 버린다。 어느놈을 잡을까 마구 기어다니는 고 귀여운 놈들중 크고 덧있는 놈을 잡아야 할텐데。 여러마리를 욕심내어 한마리도 못잡게 된다。그들의 느끼는 정도는 아주 민감해서 근처에 접근하기가 무섭게 숨어버린다。때는 왔다。번개같은(?) 동작으로 目的番를 향해 돌진하면 그놈은 숨고 내손은 따라서 구멍을 들쑤셔낸다。물려선 안된다。손가락으로 진흙을 움켜가며 잡는다。한놈잡고 또 그다음을…。

내가 흥분했는가 보다。사실상 그 추억을 그리는 재미란 또 유별난 것으로 나의 특이한 취미중에 空想도 대단한 몫을 차지한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공상에 버스를 타면 내릴곳을 지나기가 일쑤이고 授業끝나는 종이 울리기가 예사다。덕분에 명청스런 행동을 주책하지 못하는, 그런 類의 나는 내 취미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낚시도 좋고, 눈싸움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영화, 독서(무협지)아이스하키등등의 눈으로 보는것들이다。

그리고 상치 못한 애기는 자랑거리가 못되지만 철따라 취미따라 열중하는 내정열은 주체치 못할 정도다。

아차, 하나 빠진게 있지。바로 好酒로서 이는 내가 어릴때 들에 밥내갈때 일꾼用 술주전자를 비우고 논두렁에 잠들은 것을 기화로 퍽이나 사죽을 못쓰게끔 내주변을 서성거린다。

깔끔하고 정리적이며 꾸준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은 가끔 나를 부럽게 생각한다。때문에 명달아서 우표도 천여장 모아보고 藏書를 모으는 재미도보아 봤지만 역시 깔끔하게 되지 않는 것은 性格의 차이를 넘지 못하는 취미탓일까?

<政外科>

낮잠

조석규

예로부터 낮을 뜯는다는 일은 등서양을 막론하고 「最高罪」으로 받들어 주지만。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르신 히피의 창조주、가라사대 「여러 거지가 자빠졌때에 쓰신 엣분들의 말씀이 「이웃 총각을 내몸같이 사랑하란」는, 그분들께는 같히 파격적인 발언을서슴하지않는 요즘의 아가씨들에게 있어서는 골세다。

더 더구나 봉사활동도 좋지만 나같이 시력이 0、3도 못되어 싸이끌롱학을 강주하는 주제에 봉사란 말을 금지도 못한 용성을 뜯이며 반길단한 것은 결코 못된다。

그래도 나는 잠니 아니라는 0、2정도의 자부심으로 그것에 0、2정도의 관심이 가는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봉사활동에대한 2만큼의 관심을 풀어보려한다。모든 여학생들은 절 실천하길 바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 첨 그냥 봉사활동하되 있결 과는 일거양득을 가져올 수 있는것이다。

한기말 시험을 별로 잘놓치 과목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는 분들이 있다。무더운 삼복더위、교수님께서 파롤하여 연구실이나 서재에 여 독서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고 계실때 커튼한 부채를 들고 찾아간다。

말을 흩 면서 오비오는듯 직 연구에 전념하시는 교수님을 위해 약간의 팔운동으로 교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린다。그러면 아무리 소금독을 사랑하시는 교수님이라도 이와같은 현신적인 봉사를 받아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약간 사양해도 하단듯해 학점은 受用해야겠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확실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학점이 약간의 상중을 나타낼 것이다。

한기말 시험을 자신없게 치룬 한생은 시험으로 시력도해 볼 기분이다。그리고 낮잠을 자고난 후 무서움을느껴 보았다。마루에서 잠들었다 깨었을때 문득 섭뜩해지는 그건, 옵사 증상이었다。나의 여름생이 자고나면 두려움이 청열됐던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일것이다。그런데 가끔 서서 졸고있는 차장이나버스차창에 기대 애처롭게 보이기까지 한다。그 차장은 다음 정류장을 깜박잊고 있는것일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음을 잊어버리고 있는것이 아닐까。혹시 꿈속에서 무엇을 찾아 헤메고 있는것이나 아닌지。이야기가 비슷해지는것이 그러나 만순히 낮잠이라는것이 여러가지를 생각케한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것이다。어디에나 문제는있다。 그저 박수나 치며 노래부르는, 그런 기분이 저야겠다。이번 여름엔 나도 낮잠을자는데 일가견을 가져보아야겠다。낮잠자다 꿈을 꾸고 꿈속에서 노랠하고, 꿈속에서 300다마도 되어보고, 교수도 되어보고 군인도 되어보고 록펀강도도 되어보고 돌라 선전반원도 되어보자。

어린아이처럼 자꾸 꿈을꾸자。莊子처럼 나비의 꿈이 아니라 공상의 꿈을 꾸어보자。그럼 혹 아는가。다음학기 부터「낮잠과 그꿈問題」라는 기탁하게호 기심이 가는 과목이 생겨든지。또 그 과목으로인한 「아름스럽」이 생길런지。 그럼 그땐 나도 처음 A학점도 받아 보고 「아름스럽」 걸린 학생들을 웃어줄 수도 있겠지。낮잠을 자자。그리고 「크린트이스트우드」가되어 춤을 추자。한번들 웃어가며。

<國文學科>

낮잠

—꿈을 꾸며 노래하자

아리

「게이샤」文化의 유혹

지난8일 公州에서의 百濟 第25代 武寧王陵의 發掘은 지금까지 아리송하기만 하던 百濟 文化를 재평가할 좋은 계기가되었다。발굴된 遺品을 통해 알수있듯이 1천5백여년전에 벌써 조상들이 이토록 훌륭한 文化를 가졌었다는 데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더구나 그시대의 일본으로 말하자면 아직 야만적인 文化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史實에 대해서는 어깨가 저 으쓱해질을 자아낸다。

文化思潮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맹종하고 있다고 탓하지만 그것은 고치기 어려울만큼의 固疾은 아닐 것 같다。물론 자숙하고 좀더 분별있는 눈으로 새문화를 受用해야겠다는 데는 異見이 있을리 없지만, 「게이샤文化」와 같은 갖지려운 倭色風에 연연해하는 많은 수의 旣成世代들 보다는 훨씬 건전하다는 말이다。

▼:지난15일 정부의 인가를 얻은 韓國일본문화공보관이 8월초부터 활동을 개시하리라 한다。우리가 일본에 文化공보관을 두고있는만큼 互惠原則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문화공보관이 설치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이제 정만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서 인기를 한것이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네의 약점이 두려워서였지도 모른다。

이제와서 새삼 민족감정만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면, 잠적인 親日세력의 迎合현상이 혹시라도 나타날까 오직 염려된다。

왜냐면 없는 文化를 생각할 수 없고, 主體性없는 固有文化를 論할 수는 없다。

▼:왜냐면 知性과 주체성으로 外來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들 大人의 책임이 한결 크다。

<Y>

新刊書評

12個의 大小經 엮어 各節마다 註

東國譯經院에서 지난 6월 간행한 한글대장경은 대장경의 그 일부로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금번 42집은 12개의 大小경이 국판 총634P로 엮어진것으로 그중 주요 부분인 雜寶藏所說經은 「성스러운 유마힐의 소설경이라고 이름하는 大乘經典」이란 뜻으로 본경의 주인공인 유마힐을 중심으로 對話와 偈頌으로 되어 있다。

또한 印度에서 성행한 瑜伽行派의 修行 즉 禪定과 그 修行、그리고 실천에 힘입어 이루어진 修行道地經등이 나타나게 된다。

各節마다는 註가 달려있고 모든 한자는 괄호안에 註記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각절히 詩體로 된 偈頌은 귀절마다 풍부한 眞實性이 담겨져 있는 이로 해여금 佛陀의 眞理를 쉬이 깨달게끔 인도한다。

알맞는 비유와 설명이 各節의 王등 人格化한 상징인물을 소재로 적절히 구사해 나가는 발췌은 대장경을 역사에 길이 남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번역게재된 經名

▲雜寶藏所說經 ▲修行道地經 ▲佛說須眞天子經 ▲除地八經(上·下) ▲佛說禪印定解 ▲佛說禪行三十七品經 ▲佛說大安般守意經(上·下) ▲佛說海龍王經 ▲佛爲海龍王說法印經 ▲十善業道經 ▲佛爲娑伽羅龍王所說大乘經 ▲觀行法想經

CCB英語講座
乙支路3街 일반버스정류장옆 (商銀을지로지점건너편) TEL ㉔2970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美語無料公開講座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當日敎材는 無料제공)
※담당 ROBERT BAHK 敎授 院長
※午後2時부터 6時까지 續講
⊙學校敎育 10年으로不可能한 會話도 1回청강으로 要領完全터득!
⊙10年을 배워도 T·V 영화 Radio 히어링이 不可能한 理由를 아십니까?
⊙ 會話會話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時間表 AM, 7·00~8·30
PM, 4·30~6·00
PM, 7·00~8·30
(時間 自由선택 3回강의 同一)
敎 材 生活英語 CCB英語, NHK방송교재, YELE大, HAWAI大의 英語會話교재 등
專攻知識의 活用과
就職은 會話를 兼해야!

東大 지정 寫眞館
□최대의 시설!
□최고의 기술진이 奉仕!
□흑백과 칼라의 완전시설 자랑!
쎄븐寫場
■당신의 영원한 사진은
「쎄븐」에서!
본점 서울종구明洞2가200번지 국립극장옆 TEL ㉒2272 ㉓1397
지점 서울종로구세종로231번지 국제극장옆 TEL ㉖5557
代表 權相純

演劇人의 指針 知性人의 敎養書! 값 150원
季刊 現代演劇
創刊號/여름號 판매중!
主要目次
問題性의 提起와 解決로써의 卷頭提案 …… 林星秀
테파토지 劇場化 …… 柳致眞
俳優의 作業 (連載1) …… 르빠쁘르트
特輯
來日을向한 挑戰과 座標 …… 吳學榮
劇場에의 接近 …… 韓在壽
레폴드·핀터와 생일파티 …… 柳德馨
韓國 大學劇의 硏究 …… 金成娥
〈創作戲曲〉 天下大將軍 …… 金興雨
〈資料戲曲〉 殘雪 …… 金雲汀
劇團과 公演場 …… 柳在昌
俳優 …… 鄭珉
美術 …… 金貞桓
演出 …… 李眞淳
創作 …… 吳榮
編發行人 金林興雨星秀
발행소 서울시내 성북구 우이동 一八六번지 현대연극사 연락처 동국대학교 소극장

官認 I.L.I 학원
外國語의 전당
◎美國人 영어會話·한인 영어會話
◎日本語(文法·會話)
◎불어·獨語
◎서반아語(文法·會話)
◎時事英語(Time & Digest반)
◎海外여행 인터뷰반 ◎英作해석전문반
◎貿易士 시험준비반(貿易英語·法規)
수시 접수
종로2가네거리 인천행 삼화고속앞
자세한사항은 電話㉔1817로 문의하십시오

귀와 입과 녹음기만 있으시면
영어회화는 걱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왜? 녹음테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①ENGLISH 900(전6권) 1권 7시간30분 총시간 45시간
②아메리카 口語英語(入·初·中·高級) 총시간 11시간
③불어 모제(1권)
※외국수입 오리지날 테이프이므로 교재와 내용이 꼭같음
여러분이 갖고계신 어느 녹음기에도 맞도록 녹음되어 있아오니 오시는 즉시 구입할 수 있읍니다.
전화 ㉓2272 명동입구 딸라골목중간 베토벤음악사